

‘광주형일자리’ 결실...GGM 첫 차 ‘캐스퍼’ 베일 벗다

외장이미지 첫 공개...개성있는 디자인+실용·안정성 갖춰
15일 출시 1천500만원대...GGM “올 1만2천대 생산 목표”
기존 자동차 시장 판도·고정관념 바꿀 ‘게임 체인저’ 기대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의 ‘노사 상생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신차 ‘캐스퍼’(CASPER)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GGM과 현대자동차는 1일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모습의 새로운 엔트리 SUV 모델 캐스퍼의 외장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했다.

전장 3천595mm, 휠베이스 2천400mm, 전폭 1천595mm, 전고 1천575mm로 1.0 MPI가 탑재된 배기량 1천cc급 기본 모델과 1.0 T-GDI가 탑재된 액티브 모델(터보

모델)이다.

GGM이 오는 15일부터 위탁 생산하며 올해 1만2천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캐스퍼는 실용성과 안전성, 개성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급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모델이다.

차명 캐스퍼는 스케이프보드를 뒤집어 착지하는 캐스퍼 기술에서 영감을 받았다.

새로운 차급과 우수한 상품성으로 기존 자동차 시장의 판도와 고정관념을 바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SUV 모델 ‘캐스퍼(CASPER)’의 외장 디자인.

〈현대자동차 제공〉

꿀 것이라는 현대차의 의지가 담겼다.

외관 디자인은 당당함과 견고함을 바

탕으로 엔트리 SUV만의 젊고 역동적인 감성을 담았다.

전면부는 상단에 턴 시그널 램프, 하단에 아이코닉한 원형 LED 주간주행등을 배치한 분리형 레이아웃과 미래지향적인 파라메트릭 패턴 그릴, 넓은 스킵플레이트로 캐스퍼만의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완성했다.

측면부는 불륨감이 돋보이는 펜더(휠 아치)와 높은 지상고로 차량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정면과 측면 1열 창을 시각적으로 연결시킨 검은 색상의 A필러로 개방감을 부각시키고 이음새 없이 도어 패널과 하나로 연결된 B필러와 브릿지 타입의 루프랙을 통해 견고한 인상을 강조했다.

현대차는 이날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스포티한 디자인 요소를 더한 액티브 모델 이미지도 선보였다.

현대차는 이날부터 캐스퍼 전용 웹사

이트(casper.hyundai.com)를 오픈하고 ‘얼리 버드 예약 알림 신청 이벤트’ 등 캐스퍼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엽 현대차 디자인담당 전무는 “캐스퍼는 젊은 감성을 추구하는 전 세대를 타겟으로 디자인된 차량으로 세대 간의 교감을 이끌어 내는 엔트리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대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는 “우리 기술로 생산할 자동차의 이미지가 처음으로 공개돼 무한한 자긍심과 함께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GGM은 오는 15일 양산을 앞두고 반드시 세계 최고 품질을 확보해 모든 소비자가 만족할만한 자동차를 생산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성기자

광주 일일 확진자 30명대로

광산구 외국인·학교, 북구 유치원·교회 등 곳곳 전수검사

전남, 부부모임·교향 방문 가족 접촉 등 양성 판정 잇따라

광주에서 일일 확진자가 30명대에 들어서며 등 지역 내 산발적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학교와 교회, 건설 현장 등 곳곳에서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35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확진자는 4천125명으로 늘었다.

이날 확진자는 ▲광산구 외국인 등 검사 관련 7명 ▲북구 지인 모임 관련 5명 ▲서구 가족 모임 관련 4명 ▲다른 지역 확진자 관련 6명 ▲광주 확진자 관련 6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5명 ▲해의유입 2명이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30명 ▲30일 19명 ▲31일 37명 등으로 30명대로 올라선 추세를 보였다.

광산구 외국인 확진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총 확진자 수는 677명을 기록, 국제

학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난 1월(717명)에 이어 가장 많았다.

전수검사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한 광산구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교직원 등 373명, 북구 유치원에서도 68명을 전수 검사했다.

유치원 확진자를 포함해 4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사업장별로 동선,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북구 교회에서는 전날 확진자가 나온 뒤 교인 등을 검사한 결과 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동구 건설 현장에서도 2명이 확진돼 방역 당국이 현장 평가와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2명, 북구 모 병원에서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광주지역에서 전염력이 강한 델타변이바이러스 감염이 지난 한 주간 53명 확인될 만큼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일가족들과 지인·동료 등이 잇따라 확진되는 등 지역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도내 9명(순천 4명, 나주 3명, 영광·화순 각 1명)이 코

로나19 진단검사서서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2618-2626번으로 분류됐다.

순천에서 발생한 2명은 부부사이로, 지난달 29일 도내 한 음식점에서 부부모임을 가진 뒤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아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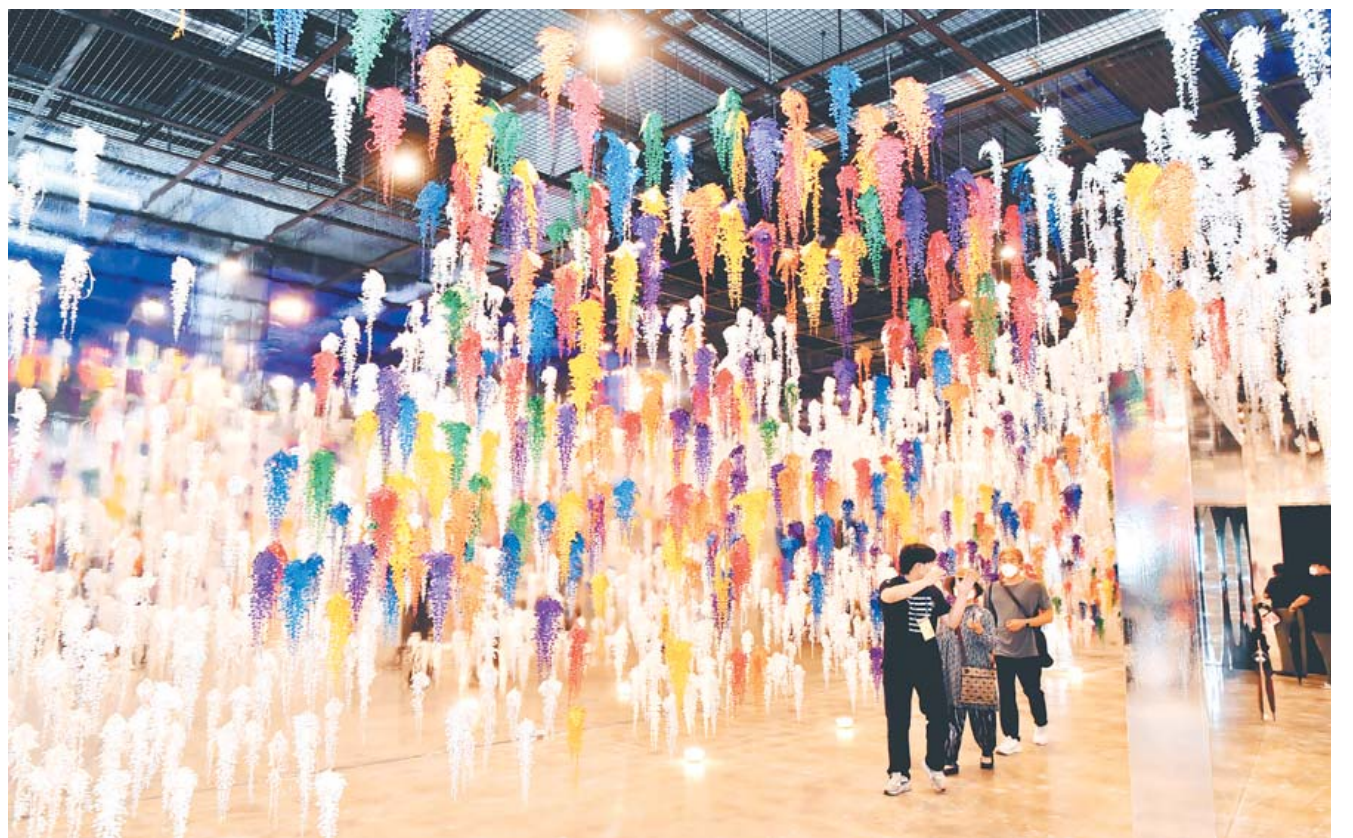
나머지 순천 확진자 1명은 앞서 양성 판정을 받은 전남 기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 확진자 3명 중 1명은 광주 한 물류센터 종사자로 지난 27일 직장동료와 만난 뒤 확진됐고, 또다른 한명은 격리 해제 전 검사서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영광에서 발생한 1명은 최근 구리에서 고향을 찾은 가족과 접촉한 뒤 감염됐다.

한편, 전남도는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8대 핵심 요구 미합의시 2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병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과 코로나19 치료 및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도, 소방본부, 시군 보건 관계 공무원 35명을 파견해 의료공백을 지원하는 등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비해 응급의료, 중환자, 수술, 투석 등 필수업무 유지와 촘촘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임후성기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디자인 혁명을 추구하는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1일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61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관람객들이 1관 주제관에 전시된 ‘From Color to Eternity’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50여개 국가 421명의 작가 및 국내외 기업에서 총 1천39종의 작품을 선보이는 디자인비엔날레는 ‘다-레볼루션(d-Revolution)’이라는 주제로 10월31일까지 펼쳐진다. /김애리기자

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10월 1-21일 국정감사

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감사 일정을 포함한 정기국

회 세부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8-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3-16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 25일 진행된다.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법안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29일 두 차례 걸쳐 개최한다. 정기국회는 이날 개회식으로 시작으로 12월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연합뉴스

못 받은 돈! 고민하고 계신다면 채권회수를 위한 현명한 선택!

SMART한 채권추심 신용조사 SM에스엠신용정보

1. 믿을 수 있는 기업

에스엠신용정보는 대한해운, 티케이메카닉, 남선알미늄, 우방건설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SM그룹의 소속으로 공신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2. 업계 최고의 채권회수 시스템

전국 26개 점포망을 연결한 빈틈없는 조직과 부동산, 차량조치 등 업계최상의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한 회수를 약속합니다.



이럴 때 이용하세요!



매번 추가거래를 하면서 늘어만 가는 미수금



입금 약속만 하고 회피하는 채무자



공증 또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

SM에스엠신용정보 | 광주지사 062-606-9000 순천사무소 062-722-1930 고객의 행복은 SM의 희망입니다.